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보호무역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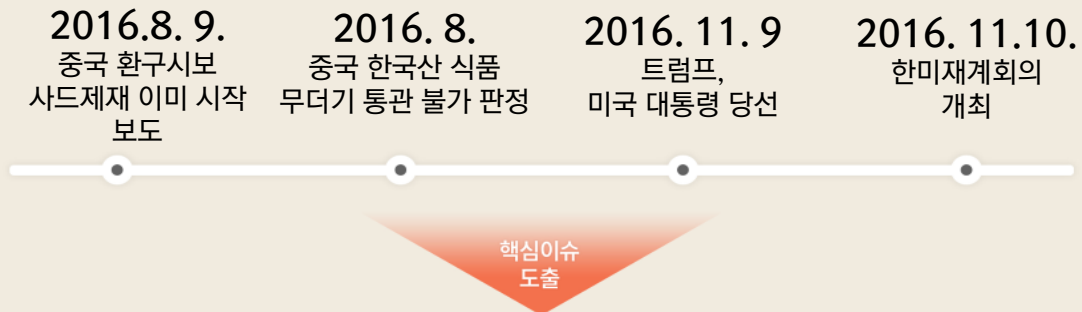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미국, 중국, 보호무역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미·중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크게 증가”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중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크게 증가

10월 16일 현대경제연구원 발행 ‘미·중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각각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 부문에서 비관세장벽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8년 기간과 2009년에서 2016년을 각각 비교한 결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2,573건에서 2,797건으로, 중국은 814건에서 1,67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건수 중 기술 비관세장벽(TBT) 부문은 총 502건에서 1,146건으로 228.3%,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식품·의약품 분야는 17.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위생 및 검역(SPS) 부문은 1,765건에서 1,359건으로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2016년 누적 기준으로는 전체 건수 중 위생·검역 관련 건수가 전체 98%로 보호무역 조치 중 가장 높았다.

중국은 위생 및 검역(SPS) 부문에서의 통관거부 사례가 249건에서 887건으로 356.2%,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 무역 조치를 취한 식품·의약품 품목은 전체 품목의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장벽(TBT) 부문에서는 자동차 등 기계 부문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 식품 부문에서는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최근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대외수출 타격 우려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식약 등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기밀 누출 및 지적권 침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